

[ 종합 ]

# “서민경제 올인을” vs “단기대책 효과없어”

〈김근태 의장〉

〈권오규 부총리〉

## 黨政, 경기부양책 싸고 시각차 극명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기활성화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문제에 대한 당정간 이견이 아직까지 해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권 부총리의 취임 예비인사 자리에서 재삼 확인된 것.

최근 ‘서민경제 우선론’을 내세우고 있는 김 의장은 권 부총리를 만나 자마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정부가 사라져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없고, 이 같은 논리에 반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김 의장은 이어 “당과 정부는 가끔 쳐다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지만 2인 3각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안된다. 정부입장을 존중하지만,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5·31 지방선거 결과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당을 비판한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수장이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이) 맞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기초체력이 있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도 목이 마를 땀 찹량 음료도 마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과 함께 하겠다”며 일부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박인 셈이다.

권 부총리는 오히려 “한미 FTA는 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자”고 김

의장의 허를 찌르는 모습까지 보였다.

김 의장은 “옳으신 말씀이지만 국민의 걱정도 많으니 정부가 감추지만 말고 국회에 보고하고, 보완대책도 세워야 한다”며 “정부도 FTA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게 부당된 듯 배석한 이목희 기획위 원장은 “권 부총리는 아주 소신이 뚜렷해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덕담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박인 셈이다.

권 부총리와 서울대 상대 동기인 이계안 의장 비서실장은 “너희는 가난한 나라의 엘리트”라는 대학시절 은사의 말을 소개한 뒤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으니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방산업체 동기생에 6백만원 받았다”

## ■ 김정일 방위사업청장 사임 기자회견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7개월 만에 중도하차한 배경으로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5천 유로(한화 600여만원)를 받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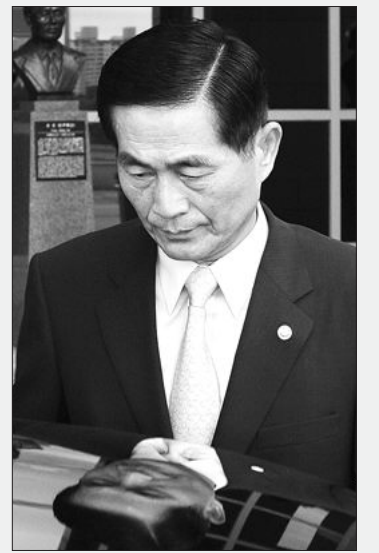
김 청장은 19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출장 때 골프를 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던 중 차관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신문 스크랩을 보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실무자의 실수로 귀국 비행기를 놓친 뒤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것이 부담을 느끼고 있

던 차에 차관급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사퇴를 결행하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의 이날 해명을 보면 해외 출장 때 골프를 친 것과 비행기 안에서 친구(동기생)로부터 무관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이 사퇴를 결행하게 된 계기로 보인다.

그는 ‘골프와 격려 봉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묻자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해 골프를 친 일과 돈 봉투를 받은 것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컸음을 반증했다. /연합뉴스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방위사업청 김정일청장이 19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법조비리 근절법안 ‘국회서 낮잠’

## “법조계 출신 의원들 비협조 때문” 지적

법조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미 마련된 관련 법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무부,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징계를 피해 퇴직했다고 의심되는 검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위 자료를 참고해 변호사 등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접수됐지만 1년 넘도록 계류 중이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징계를 청원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 영구제명 대상도 금고 이상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

상의 형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 법보다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넘어오지도 못한 상태라 언제 처리될지조차 불투명하다.

2004년 9월에는 양승조 의원 등의 원 150명이 관·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일부터 2년 간 최종 근무 벌원, 검찰청 관할 형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또한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전관예우 악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사건 수임만 제한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다 전관예우의 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가동향

## 광주시의회 정상화 빠걱

○비주류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 선언으로 19일부터 정상화가 기대됐던 광주시의회 운영이 상당수 비주류 의원들의 상임위 회의 불참으로 첫 날부터 삐걱거렸다.

손재홍·김일출 의원 등 9명의 비주류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19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는 나중헌·송재선 의원만 참석, 정원이 6명인 각 상임위 회의가 3~4명의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비주류측 한 의원은 “18일 상임위 배정을 대폭 바꾸기로 주류 측과 약속했으나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2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배정을 변경한 뒤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류측의 한 의원은 “19일 오전 비주류측 의원 한 명만 협조해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비주류측 의원이 아무도 본회의에 나오려 하지 않았다”며 “집행부 업무보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할 수 없이 상임위 재배정은 하루 미룬 채 상임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동구의회 27일까지 임시회

○광주시 동구의회(의장 조영복)가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4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안 ▲동구지방공무원 정員조례 일부 개정안 ▲동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동구 급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구위생매립장 제5기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 ▲화동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된다.

## 한나라 도당 재해 예방활동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재순)이 18일 도당내에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재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당은 이날 중앙당 지침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 예방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역별 재해발생 상황과 예방활동 내용을 매일 중앙당 재해대책본부에 보고기로 했다. /정홍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영화안니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아파트사거리 ☎예약1544-0800

1관 카미온의 해적-망자의 함 (연예) 최고급본

2관 한반도 (154)

3관 패스트인류어스 (124)

4관 캐리비안해적-망자의 함 (연예)

5관 한반도 (154)

6관 아랑 (154) / 아파트 (124)

7관 울트라 바이올렛 (124)

8관 한반도 (154)

Megetizen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평일만) (이용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평일 무료관공파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한반도

한반도

한반도

엔터시네마

충장로 57가 ☎ 228-2700

1관 슈퍼맨리턴즈 (연예)

2관 비밀한 거리 (124)

3관 한반도 (154)

4관 사이렌 (154)

5관 카 (연예/124)

6관 아랑 (154)

7관 캐리비안의 해적 (124)

7월22일부터상영 프로그램(연예) 1544-0800

• 매주 월요일 휴업 (연예) 1544-0800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연) 1,500원 할인 (공휴일제외)

콜롬버스 시네마

해남점 (무의현관동면) 상무점 (상무동원로) 아트 S10

1관 패스트인류어스 도요도르프 (154)

2관 아랑 (154) / 사이렌 (124)

3관 캐리비안해적 (124)

4관 캐리비안해적 (124)

5관 울트라 바이올렛 (124)

6관 울트라 바이올렛 (124)

7관 한반도 (154)

8관 카 (연예/124)

9관 아파트 (154) / 한반도 (154)

10관 한반도 (154)

• 호박 축제 • 주말상영 • 평일상영 1588-7941

• 콜롬버스 아카데미 (100명) • 전액 상영 (11번 or 12번) - 11번

씨너스 광주 8개관

8월 초 오픈

T.383-3445~7

★남·여 직원 및 아르바이트 모집★

★상가임대문의★

T.(062)384-3535

북구 용봉동 6,000여 세대 아파트단지에 유일한 초대형 테마상가-

#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M-Tower

대출  
우리은행에서 분양가의 40%까지 융자가

권장 입주층	1층	판매시설	편의점, 약국, 미용실, 커피숍, 피자점
2~3층	병·의원시설	소아과, 통증클리닉, 안과, 이비인후과	
4~5층	교육연구, 업무시설	입사학원, 논술학원, 불려나라	
6~7층	체육시설	웨트니스센터, 요가, 피부관리샵	
8층	근린생활시설	패밀리레스토랑, 플레이랜드	

현장 및 분양사무실 위치도

분양 및 임대문의

062)525-2468

주요업체: 동도아우징, 동도건설, M-TOWER, 광개왕개발(주)

가족의 건강을 위한

#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이제 몸까지 맑아집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온도와 습도는 그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1년 365일 신선한 공기!

신우공조(주) SHIRWOOD AIRPASS CO., LTD.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24번지 동문 굽모방타워II 728호  
TEL: (031) 920-8360 FAX: (031) 920-8361  
홈페이지: Shinwoofcu.co.kr or 환기유니트

(주)신우에스텍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8-12번지  
TEL: (062) 512-2252 FAX: (062) 512-2433

(주)신우이엔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18-135번지 405호  
TEL: (062) 523-6403 FAX: (062) 522-0552